

KIA 마운드 부활 날개짓 한기주·차명진·박상욱

“이제 웃음 던집니다”

한기주, 통증 없이 60% 피칭...내년 복귀 목표

차명진·박상욱 캐치볼 돌입...가을 마운드 '도전'

마운드 부상병들이 2015시즌을 기약하며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다.

막바지로 향해가는 2014시즌, 환호와 감동의 그라운드 위에서 눈물과 땀의 시간을 보낸 이들이 있다.

부상으로 애타게 마운드만 지켜보던 투수 한기주·차명진·박상욱이 복귀를 위해 야구공을 집어들었다. 내년 시즌 KIA 마운드의 한 축을 담당해줘야 할 대들보이자 기대주들이다.

지난해 5월 어깨 수술을 받았던 한기주의 2015시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준비되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개인적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는 한기주는 하프 피칭을 끝내고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다.

한기주는 “현재 60% 정도로 피칭을 하고 있다. 통증도 없고 계획대로 재활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재활’이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서서히,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건강하게 마운드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주는 특별한 계획을 마음에 담고 있지는 않다. 그동안 팔꿈치·손가락 수술 등으로 힘든 재활의 시간을 견디고 또 견딘 만큼 부상에서 완벽하게 탈출하는 게 한기주의 바람이자 욕심이다.

부상에 눈물을 흘렸던 두 루키 차명진과 박상욱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차명진과 박상욱은 올 시즌 각각 순천 호천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KIA에 입단한 신인 투수다. 파워 피처인 차명진은 5년 만에 부활한 우선 지명에서 KIA의 선택을 받은 기대주. 경기 운영이 능력이 좋은 박상욱은 내야수 강한울에 이어 2차 2번으로 이름이 호명된 재목이다.

두 선수 모두 즉시 전력감으로 2014시즌 KIA 마운드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각각 팔꿈치 부상과 무릎 부상으로 프로 마운드에 한번 서지도 못하고 수술대에 올랐다.

박상욱이 먼저 하프 피칭에 들어가면서 가을 마운드에 도전하고 있다. 차명진도 길고 지루했



차명진

박상욱

던 재활 운동을 끝내고 29일부터 캐치볼에 들어갔다. 간헐하게 그리던 공을 손에 쥐게 되면서 두 선수의 얼굴에도 비로소 웃음꽃이 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름 복귀가 예정됐던 광정철은 잔골절을 걷는 후배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긴 단식을 내뿜었다. 스프링캠프 도중 무릎 부상으로 중도 귀국했던 광정철은 왼 무릎에 이어 최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올 시즌 복귀가 불투명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기주



한·일 좌완 '특급 대결'

류현진, 3일 컵스전 와다와 빅매치

미국프로야구 다승왕을 향해 달리는 류현진의 13승 도전이 하루 미뤄지면서, 한·일 좌완투수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인 MLB닷컴은 류현진이 계획보다 하루 더 휴식을 취한 뒤 8월 3일 오전 10시10분(이하 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 등판한다고 전했다.

애초 류현진은 2일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저스 돈 매팅리 감독이 댄 해런의 로테이션을 한 차례 건너뛰게 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이날 출전시키기로 하면서 하루 밀렸다.

컵스는 3일 선발투수로 좌완 와다 쓰요시(33)를 예고해 둔 상태다.

와다는 류현진과 비슷하게 자국 리그를 평정하

고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 좌완 투수다.

데뷔 시즌인 2003년 신인왕에 오른 그는 2010년 17승 8패로 다승왕과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등 2011년까지 9시즌 동안 107승(61패)을 거두며 일본프로야구 최고 좌완으로 승승장구했다. 2011시즌을 마치고 불티모어 오리올스와 계약,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와다는 부상 탓에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시카고에 입단하면서 부활에 나섰다.

올해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19경기 10승 6패, 평균자책점 2.77을 찍은 끝에 7월 9일 신시내티지에서 첫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밟는 데 성공했다. 올해 세 번의 메이저리그 등판에서 1승 1패와 평균자책점 3.38을 기록 중이다.

와다는 일본 국가대표로 국제 대회에도 여러



차례 출전해 한국에도 익숙한 이름이다.

아테네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03년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결선리그 한국과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무실점으로 승리, 한국의 올림픽 출전권을 빼앗은 바 있다. 베이징올림픽 예선 풀리그에서는 한국전에서 7회 이대호에게 동점 홈런을 허용한 기억도 있다.

류현진의 등판이 하루 미뤄진 덕에 휴식이 늘어났다.류현진은 올 시즌 5일 휴식 후 등판했을 때 평균자책점이 2.80으로 4일 휴식했을 때(평균자책점 3.68)보다 훨씬 좋았다.

충분히 체력을 회복한 류현진이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최하위 컵스 타선을 상대로 심상한 공을 던진다면 와다와의 맞대결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김효주-안선주 첫날부터 점전

KLPGA 한화금융클래식 공동 선두

김효주(19·롯데)와 안선주(27)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한화금융 클래식 첫날부터 점전을 벌였다.

KLPGA 투어 상금 랭킹 1위를 달리는 김효주는 지난 31일 충남 태안의 골든베이 골프장(파72·6631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더블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쳐 오후 3시 15분 현재 안선주 등과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다.

올 시즌 2승을 거두며 상금 4억7000만원을 쌓은 김효주는 이 부문 2위 장하나(22·비씨카드)를 약 1억6000만원 차이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우수 상금 3억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시즌 총상금 7억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

10번홀에서 출발한 김효주는 전반에 3타를 줄인 뒤 2번홀(파3)에서 버디를 추가, 단독 선두까지 치고 나갔다.

김효주의 상승세는 4번홀(파5)에서 한풀 꺾였다. 두 번째 샷이 그린 오른쪽 깊은 러프에 떨어진 뒤 피칭 위치로 볼을 빼내려다 해저드에 빠지는 바람에 한꺼번에 두 타를 잃어 버렸다. 하지만 7번홀(파5)에서 두 번째 샷으로 볼을 그린에 안착시킨 뒤 가볍게 버디를 잡아 만회했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시즌 3승을 수확, 상금 랭킹 1위(8570만 엔)에 오른 안선주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효주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 안선주는 버디 5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3언더파 69타를 적어냈다.

3년여 만에 국내 대회에 출전한 안선주는 전반에 1타를 잃어버렸지만 후반에 뒷심을 발휘, 버디 4개를 쓸어담아 김효주와 나란히 선두권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에 조양호(65) 한진그룹 회장이 선임됐다.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김진선 전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김정영 대한체육회장 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

아왔다.

조 위원장의 임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2년이다. 원래는 김진선 전 위원장의 전임 임기인 2015년 10월18일까지였으나 장관 승인일로부터 2년을 새로 보장받게 됐다. /연합뉴스



균형美

30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2014 영국연방경기대회' 남자 체조 개인 종합 경기에 출전한 웨일스의 해리 오웬이 링 연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